

합격기
[제55회 행정고시 행정직 합격]

꿈과 믿음 그리고 실천



정 인 영

- 1986년 8월 생
- 대전대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업
- 제55회(2011년) 행정고시 일반행정(전국) 합격

1. 공부의 시작

“예술학과 학생이 행정고시를 한다고? 왜?”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헤아릴 수 없
이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때 갤러리에서 인턴 큐레이터
로 근무해본 이후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술을 증흥하는 데 기여하는 일을 한다
면 삶이 참 보람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
다. 미술관 정책을 짜거나 문화재 환수
정책을 담당한다고 상상할 때에는 가슴
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행정고시
에 합격하면 학위가 없다 해도(갤러리에
서 같이 일했던 분들은 대부분 석사 이
상 학위를 소지하였습니다) 문화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
다는 것도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
다. 하지만 선뜻 공부할 마음을 먹지는
못했었는데, 행정고시에 관하여 아는 것
이 없었고, 무엇보다 고시공부에 매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살면서 진지하게 공부해본 일이 그리 많
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불신
이 상당했으며, 고등학교에서 이과(理
科) 공부를 하고 대학에 와서는 미술 공
부만 한 세계 행정법이나 경제학과 같은
과목들은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우선 3학년 1학기 수강과목으로 행
정법총론과 미시경제학을 신청하고,
2009년 3월에 시행되는 토익시험에 응
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턴을 마친 후
한 달 간 토익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시험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 최초의 경험이 아니
었나 싶습니다. 행정고시 커트라인 700

점 보다 100점 높은 800점을 목표로 하여 RC/LC 책을 한 권씩 사서 다 풀기로 마음을 먹었고, 실제 다 풀 후에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발표 결과 930점을 받아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목표로 설정한 공부량의 달성과 비록 작지만 좋은 성과로 인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 2009년 1학기

법학과 경제학의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용기를 내어 행정법총론과 미시경제학을 수강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행정법총론 수업은 송시강 교수님의 탁월한 설명 때문에 타과생임에도 진입장벽을 별로 느끼지 못했고, 강의 시간 내내 웃으면서 재미있게 공부했었습니다. 수업 중 교수님이 행정고시를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을 뒤따라가 “제가 행정고시를 준비할까 하는데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행정고시 준비를 생각하는 것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의 공부계획표를 만들 것, 1시간에 10페이지씩 교과서를 읽어나갈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던 제게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공부 방법은 한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2009년 4월 1일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하여 경제학과 고시반인 수성사에 입반하였습니다. 그 이후 책을 한 권 마칠 때마다 교수님께 찾아가 이야기를 드렸고, 교과서를 읽어나가는 와중에 아주 사소한 질문까지 모두 포스트잇을 붙여두었다가 수업 마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책의 옆면이 포스트잇으로 온통 채워지자 교수님께서 행정구체법 수업을 청강할 것을 제안하셔서 중간고사 이후부터 청강을 하고 비록 청강생이지만 기말시험까지 보았습니다.

반면 김동일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수업은 첫 시간부터 저를 혼돈 상태에 빠트렸습니다. 선호에 관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강의이었음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그 다음 수업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은 미대생이 수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에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구하여 6월에 걸쳐 1회독을 한 후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차츰 수업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까지 전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본 후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어디서 수학 공부를 따로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평생 쓸 일 없을 줄 알았던 미적분이 이렇게 도움이 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경제학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 질문하면, 교수님은 연구실에서든 이메일로든 언제든지 반갑게 답해주셨습니다. 2009년 1학기에는 이처럼 학교 교수님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법총론과 미시경제학의 중간, 기말시험 모두에서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수강생 중 1등을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수험생활 내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송시강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

부법에 따라 아침 9시에 고시반에 와서 밤 11시쯤 집에 돌아가며, 매 시간마다 한 시간에 10페이지씩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강의 시간 외에는 꾸준히 앉아 공부를 하였는데 학기를 마치거나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론(상),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1회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시경제학을 공부할 때 연습문제를 풀면서 흠을 씹는 고통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서는 행정학을 공부할 필요를 느꼈는데, 홍익대학교에 전공강의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고시학원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동호 강사의 1순환 강의를 매일 4~5개씩 들으며 복습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론적인 체계가 불분명하고 자료로 제시된 논문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많이 헤맸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난 이후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보려 해도 잘 그려지지 않고, 지엽적인 내용들만 편린처럼 기억에 남았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에도 크게 부족함을 느껴 혼자 교과서를 보며 공부를 해야 했으나 진도가 촉박하다는 생각에 우선 정치학으로 넘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때 행정학 교과서를 보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3. 2009년 2학기 : 2차 공부의 심화와 PSAT 준비의 시작

송시강 교수님의 행정법각론과 건축법, 백승관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및 권기현 교수님의 국제경제학을 수강하였습니다. 거시경제학은 정운찬 교수님의 책을 한 번 본 이후라서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오기도 하였지만, 백승관 교수님의 이해하기 쉽고 꼼꼼한 강의 덕분에 거시경제학의 큰 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전과 모형과 케인즈 모형을 대비하는 맨큐 교수님 교과서의 접근방식이 IS-LM 모형 중심의 정운찬 교수님 교과서의 접근방식보다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에도 두 책을 병행하여 보면서 거시경제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프와 큰 맥락을 중심으로 한 강의는 행정고시 답안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9월부터 행정고시 1차 시험인 PSAT에 대비하기 위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를 아침(9시~12시)-점심(1시~6시)-저녁(7시~10,11시)으로 나누어, 아침 시간에는 PSAT 기출문제 1회 풀이 및 첨삭을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강의를 제외하고는 2차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SAT의 유형이 비교적 잘 맞는 편이라 초반부터 60점~70점대의 점수를 받았습니. 하지만 문제를 계속 풀다보니 어느 때는 50점대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등락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80점은 받아야 안정적으로 2차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1차 시험 직전까지 시중에 나온 거의 모든 문제집의 문제를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자료해석 영역을 풀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해 신현 강사의 「자료해석-심화편」을 구매하여 따로 풀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근사 암산법- $(1-x)(1-y) \approx 1-x-y$ (x, y 가 0.05 미만일 때)-을 익힌 것이었습니다.

2차 공부와 관련하여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정치학의 이해를 한 번 손으로 써서 정리하였고, 행정법론(상)의 2회독을 마쳤습니다. 정치학도 행정학처럼 학교 강의에 기대기가 어려워 정원준 강사의 정치학 2순환을 반쯤 들어보았으나,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들어도 이론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고 범위가 매우 넓어서 오히려 정치학이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점차 PSAT 공부의 강도를 높여 2월에는 하루에 두 타임씩 PSAT 공부를 하였습니다. 김동일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을 1회독 하였으며, 성봉근 강사의 행정법판례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김연태 교수님의 행정법사례연습을 함께 푸는 강의였는데 행정법 답안작성법을 습득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4. 2010년 1학기

행정고시 1차 시험을 무사히 마쳤고 83.33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응시한 입법고시 1차 시험에서도 75점을 받아 합격하였습니다. 1학기에 도 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생각이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입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2차 시험이 당장 5월로 다가와 급히 휴학을 하였습니다. 행정법과 경제학도 문제였지만, 행정학, 정치학, 정책학이 급한 불이었습니다. 고시학원에서 박경효 전 시립대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3순환을 인터넷 강의로 신청하였습니다. 행정학 강의에 2주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과목들을 5~10일 단위로 돌리

며 2번씩 보기로 하였습니다. 행정법각론 공부를 급히 시작하였고, 경제학은 고시학원 모의고사를 구해서 풀었으며, 정치학은 정치학의 이해와 더불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인가, 국제 정세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정책학은 처음으로 봐야했기 때문에 노시평 교수님의 정책학의 이해 한 권을 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와 고시학원 강의자료를 모두 정리하고, 그것을 답안지에 녹이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에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해 왔으면서도 실험동에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에 비해 아는 것이 부족할까봐 조바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실현하기가 어려운 목표였을 뿐만 아니라 몇몇 과목에서는 방향까지 잃어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다가 급기야 입법고시 2차 시험 2주 전에 B형 독감에 걸려 1주일간 링거 신세를 지고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었지만 국회의사당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 입법고시 2차 시험을 마쳤습니다.

입법고시 2차 시험을 본 이후 건강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그간 저를 열심히 응원해주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일까지 생겨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가 가족 곁에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입법고시 2차 시험이 끝나자 행정고시 2차 시험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많이 부족함을 느껴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듯이 그때 교과서와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찬찬히 공부를 했다라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책학은 다른 수험자료를 보지 않고 교과서를 1회독하면서 그 내용을 30장 내외로 손으로 정리하여 숙지하고 시험을 보았는데 의외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흘러 행정고시 2차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정치학 시험에서 답안작성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쓸 수가 없었고, 한 글자를 쓰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중에 시험장을 뛰쳐나오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눈물이 가득 고인 상태로 답안지를 6장 반 정도 간신히 쓰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조바심을 내면서 공부를 하다가 팔을 무리하게 써서 만성 근막통이 생겼던 것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거의 내내 울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친동생이 민간요법으로 정종을 사다가 팔 마사지를 해주었으며, 나머지 시험은 팔과 손목에 붕대를 감고서 보았습니다. 이후 근막통은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었지만, 2011년 행정고시 2차 시험에서는 다행히 문제를 예상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입법고시 2차 시험과 행정고시 2차 시험 모두 평균 4점이라는 큰 점수 차로 불합격하였습니다.

5. 2010년 2학기

학교에 복학하여 송시강 교수님의 행정법연습과 대학원강의, 김동일 교수님의 경제통계학, 전성인 교수님의 법과 경제학, 금융시장과 통화 정책, 김정호 교수님의 경제발전론을 들었습니다. 건강상 약제가 있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공부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2차 시험 결과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때 어설픔게 교과서와 고시학원 강의자료를 혼용하다가 실패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이때부터는 본질을 깨우칠 때까지 교과서를 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 교과서 한 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교과서 수권을 보고, 답안지에 쓸 만한 시사적인 내용은 서울신문 스크랩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답안지 작성법은 2차 시험 3달 전부터 기출문제와 고시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 풀면서 익히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부방법이 반드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과목의 본질부터 공부해나가는 것보다는 답안에 쓸 것을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하며 공부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며 공부해야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공부법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10월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불합격 사실을 안 이후 얼마간은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럼프에서 벗어나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송시강 교수님의 도움이 컸습

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공부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치학과 행정학의 공부에 있어 카운터파트로서 이론적인 큰 틀을 잡고 구체적인 이해를 심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당시 가장 취약한 과목은 정치학과 행정학이었는데, 특히 정치학은 국제정치까지 포괄하면 망망대해처럼 느껴질 만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장집 교수님의 많은 저서와 논문 자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역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핵심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① 진영재 교수님의 정치학총론, ② 필립스 쉬블리 교수님의 정치학개론, ③ 로버트 다알 교수님의 민주주의, ④ 존 베일리 교수님의 세계정치론, 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정치학의 이해를 교재로 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①, ⑤를 중심으로 보고, ②, ③, ④는 보충적으로만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번역서인 ② 정치학개론, ④ 세계정치론이 매우 훌륭한 책을 깨닫고 접차이 책들을 위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3공 용지에 필기해가며 보았고, 나중에 바인더에 정리하여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팔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포착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 권의 책을 공부하고 나니, 눈을 감고서도 정치학의 틀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에야 나머지 과목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PSAT은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고시학원 모의고사를 구해 각 영역별로 10회씩 풀고 첨삭을 하였습니다. 1차 시험 직전까지 한 타임씩만 PSAT에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2차 공부를 하였습니다.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학과 김동일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을 다시 한 번 보고난 후에 박근성 교수님의 2011년판 행정법강의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행정고시 1차 시험은 시험을 보면서 무척 어렵다고 느꼈으나 다음날 채점을 해 보니 평균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한 달 후에 준비 없이 치른 임법고시 1차 시험에서는 66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아 낙방하였습니다. 한 달 새 치른 두 시험에서 나타난 거의 25점에 달하는 점수차는 PSAT이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 2011년 1학기

2011년 1학기에는 행정법(송시강 교수님의 지방자치법, 정보통신법, 대학원강의)과 경제학(김동일 교수님의 미시경제학2) 과목만을 수강하였습니다. 3월에는 정치학과 마찬가지로 행정학도 네 권의 교재 ① 김재기 교수님의 「행정학」, ② 유민봉 교수님의 「한국행정학」, ③ 이도형 교수님의 「행정학의 샘물」, ④ 박경효 교수님의 「재미있는 행정학」을 보면서 3공 바인더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주 정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①의 책은 기대에 못 미치게 중언부언한 설명이 많았던 반면에 ②, ③의 책은 행정학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④는 고시학원 강의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행정의 구체적인 제도들을 모두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최신 제도들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과서를 정리한 서브노트에 ④의 일부를 발췌하여 끼워두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행정학을 공부할 때 세부적인 제도들에 지나치게 치중하다보면 방향을 잃고 산만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정치학이든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사회과학의 핵심은 현상을 조망하고 통찰하는 방법론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각론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제도들은 이름과 열개 정도만 알아두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 2차 시험 준비기간을 2010년과 비교하여 보면 다소 매너리즘에 빠져 마음이 뒤숭숭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여기저기가 아팠던 관계로 공부에 온 열정을 불태우지는 못하였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출석에서 특례를 인정받아 고향인 대전에 내려가 독서실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심신이 지쳐있을 때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4월 중순 이후로 세 타임 중 한 타임은 2차 시험 기출문제 또는 고시학원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최고답안과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점짜리 모의고사를 행정법 12회, 경제학 12회, 행정학 10회, 정치학 10회, 정책학 7회 푸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2차 시험이 압박하여 교과서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하루에 100점씩 모의고사를 풀기도 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모의고사 풀이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1차 시험이 끝난 동시에 답안작성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의고사 푸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을 숙지하고 까다로운 부분의 지식을 채워 넣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월에 행정학 공부를 마친 이후에 정책학은 기존 30장 정리노트에 정정길 교수님의 정책학원론을 추가하여 정리하였고, 행정법은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강의 회독수를 늘리는 동시에 송시강 교수님 강의자료를 정리하고 김연태 교수님의 행정법사례연습을 하루에 하나씩 풀어보면서 목차를 다듬었습니다. 경제학은 이준구 교수님, 김동일 교수님, 정운찬 교수님, 맨큐 교수님 등 다양한 책을 2회독 이상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미시의 경우에는 이영환 교수님, 거시의 경우 이우현 교수님의 교과서를 새로 보고 연습문제를 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황중휴 강사와 김진욱 강사의 경제학 3순환 모의고사를 구하여 풀었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1년 2차 시험에서는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시험장에 배려다주시고 아침밥을 준비해주신 덕택에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서너 시까지 휴

식을 취한 후 정리해 놓았던 자료들을 한 번씩 넘겨보았습니다. 근막통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팔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글씨가 덜 예뻐도 팔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펜(1.6mm짜리 볼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날인 정책학 시험 중에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만큼은 심하지 않았으나 마지막 날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정형외과에서 강력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물의 후유증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한 슴도 이루지 못한 채 마지막 날 시험을 보게 된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히 답안지에 글씨를 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7. 2011년 2학기 : 면접준비

2011년 10월 11일 오후 6시 행정고시 2차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수없이 상상한 장면이었지만 정작 합격을 하고나니 뭘 뜻이 기쁘기 보단 안도감이 앞섰습니다. 2년 내저를 걱정해주었던 가족들과 친구들, 교수님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서 그리고 수험이라는 고생길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6명 중 1명을 떨어뜨리는 3차 면접이 남아있었으므로 안도감은 잠시, 다시 새로운 수험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학과 복수전공을 하기로 마음먹고 경제학과 전공강의 3과목을 수강하고, 그간 소홀히 했던 예술학과 전공과목들

과 더불어 행정법 대학원강의까지 듣다 보니 총 22학점을 수강하여 주중에는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주말에만 간신히 면접 스테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고시 면접 특유의 형식주의적 분위기와 정형화된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송시강 교수님께서 제가 속한 스테디원들을 불러 모의면접을 해 주시고 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합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면접도 2차 시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나 미소 짓는 얼굴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일관된 맥락 속에서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면접을 일주일 앞두고는 교수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양해를 구하고 강의에 출석하는 대신 매일매일 모의면접을 하였습니다. 그때 송시강 교수님께서 일일이 모든 문제를 내주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간 하드트레이닝을 받고나니 정작 당일에는 아주 편안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고, 함께 면접을 본 수험생들이나 면접관님들로부터 칭찬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8.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대학교 강의를 기초로 하여 교과서를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 수험생의 대다수는 고시학원의 강의와 자료에 의지해 공부를 합니다. 신통함에 가면 대부분의 정보가 밀집되어 있고, 스테디를 구성하기도 용

이하며, 어쩌면 제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부법을 습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공부시간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성공률이 높은 공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교과서와 참고도서를 보며 정리하는 공부는 인터넷 강의보다 재미가 떨어지고 매일 10시간을 뻘뻘하게 채우기가 힘들지만, 스스로 이해했을 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은 쉽게 휘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에 치중하거나 핵심적인 즐거움을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제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법학과 경제학에서 일정한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진득한 공부법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10시간씩 책상 앞에서 버틸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대학교의 강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남은 시간 교과서와 씨름하며 공부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제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법을 개발하여 다른 수험생들도 빨리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년 7개월에 걸친 지난 수험기간을 돌이켜보니, 행정고시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세세한 목표들을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냈던 제 과거의 모습과 화해하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저는 적성에 맞는 공부를 찾게 되었습니다. 행

정고시를 준비하며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정책학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법에 관심이 있어서 올 해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예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 이제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행정고시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은사님인 송시강 교수님, 김동일 교수님, 백승관 교수님은 저의 자잘한 질문과 고민에 언제나 웃는 얼굴로 답해주셨고, 저조차 낙관할 수가 없는 제 미래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 앞으로 어찌 보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인연을 맺은 김세룡 오빠와 신준영 오빠는 수험생활 내내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힘들 때 언제나 따뜻한 위안이 되어준 오랜 친구 김예은과 김수지, 법학과 친구 고운임과 김진형 오빠, 수성사의 멋진 오빠들 또한 평생 우정을 간직하고픈 사람들입니다. 심신이 지쳐 고향인 대전에 내려갔을 때 다니던 독서실 사장님은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시며 제 의지를 북돋아주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수험기간 내내 가장 마음 졸이며 저를 걱정해준 사람들은 아마 가족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인선, 영일,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비롯하여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